

2017년 11월 페미니즘을 전면에 내건 소설집 '현남 오빠에게'가 출간됐다. 이 소설집에는 조남주, 김이설, 최은영, 구병모 등 여성 작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조남주 작가가 쓴 표제작 '현남 오빠에게'는 이 시대의 평범한 젊은 여성들이 남자친구에게서 일상적으로 당하는 언어·심리적인 폭력을 그렸다.

이 같은 페미니즘 문학의 부상에 더해 스타 작가 김애란이 오랜만에 낸 소설집 '바깥은 여름'이 인기를 끌면서 2017년 한국 문단은 여성 작가들이 주도했다.

한국문단의 중심에 있는 전통과 권위의 출판사 창비는 그동안의 표절 사태와 문단 권력 문제를 자성하고 한국문학의 새로운 요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담아내기 위해 젊은 감각의 문예지 '문학3'을 창간했다.

문학3은 종이잡지 이름이자 인터넷 홈페이지 '문학웹'(www.munhak3.com), 현장 행사 중심의 '문학몹'으로 구성되는 일종의 문학 플랫폼이다. 문학몹에서는 독자가 참여하는 편집회의를 상설화했으며, 첫 번째로 '#문단_내_성폭력, 문학과 여성들'을 주제로 한 편집회의가 열리기도 했다.

■ 맨부커 수상 한강 비롯 이승우, 배수아 등 해외서 주목받아

소설가이자 시인인 한강은 2016년 연작소설 '채식주의자'로 영국 맨부커 인터내셔널상을 받은 데 이어 광주 5·18을 그린 장편소설 '소년이 온다'로 2017년 이탈리아 말라파르테 문학상을 수상했다. 2011년작 '희랍어 시간'은 프랑스 메디치 외국문학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맨부커상 수상을 기폭제로 한강의 작품들이 잇따라 해외에서 번역 출간되면서 작가의 문학세계 전반이 조명됐다.

소설가 배수아와 한유주는 미국 뉴욕에서 열린 '펜 월드 보이스 축제(PEN World Voices Festival)'에 참가해 이목을 끌었다. 펜 월드 보이스 축제는 미국 펜(PEN) 클럽과 인도계 영국 작가 살만 루슈디가 9·11 테러 이후 세계문학계의 소통을 늘리기 위해 만든 문학축제다. '젠더와 힘'을 주제로 열린 이 축제에 한유주는 '여성 주도적 소설' 세션에, 배수아는 '자전적 소설' 세션에 각각 참가했다.

배수아는 2016년 '에세이스트의 책상'에 이어 2017년 1월 '서울의 낮은 언덕들'을, 한유주는 2017년 3월 '불가능한 동화'를 미국에서 출간했다.

시인 김이듬의 시집 '명랑하라 팜 파탈'(영문 제목 Cheer Up Femme Fatale)은 미국 번역문학 전문 웹사이트 '쓰리 퍼센트'(Three Percent)의 '최우수 번역 도서상' 최종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 소설가 마광수, 정미경 별세

'즐거운 사라'로 자유로운 성(性) 관념을 펼쳤다가 세상의 벽에 부딪혀 곡절을 겪은 마광수 연세대 교수가 2017년 9월 5일 향년 66세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시인 윤동주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고 1977년 등단해 28세에 대학교수로 임용돼 천재로 불렸다. 그러나 1991년 소설 '즐거운 사라'를 펴내고 이듬해 10월 음란물 제작·반포 혐의

로 구속되면서 예술과 외설의 경계에 대한 격렬한 논쟁을 일으켰다. 3년간 재판 끝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연세대에서 해직과 복직을 반복하다 2016년 정년퇴임을 한 뒤 극심한 우울증을 앓았다.

중견 소설가 정미경도 2017년 1월 18일 향년 57세로 별세했다. 1987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희곡 '폭설'이 당선돼 등단했으며 2001년 계간 '세계의 문학'에 '비소 연인'을 발표하며 소설가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부르주아 계급의 허위의식을 주요 소재로 삼는 2000년대 문단의 새 경향을 주도했다는 평을 받았다.

미술

■ 개요

2017년 국내 미술계도 다사다난했다. 한국과 중국의 고고도 미술일방어체계(THAAD·사드) 갈등과 한국을 대표하는 사립 미술관인 삼성미술관 리움의 개점휴업이 큰 악재로 작용했다.

단색화를 대표하는 김환기 작품이 국내 미술품 최고가 기록을 잇달아 경신하는 등 미술시장에서 기록이 쏟아졌다. 단색화와 함께 주요 사조로 꼽히는 민중미술 작가들의 전시도 활발히 진행됐다.

■ 사드에 얼어붙은 한중 교류…삼성미술관 리움도 영업 중단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놓고 2016년 가을부터 본격화한 한중 갈등은 미술계에도 오랫동안 암운을 드리웠다.

2017년 상반기 국내 국공립 미술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중 수교 25주년 기념전을 비롯해 여러 대형 전시가 무산됐다. 수교 25주년 기념전을 준비했던 한 인사는 "작년(2016년) 9월 각 미술관이 전시 개최 의향서를 중국 측에 보내고 관련 예산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중국 측이 어렵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중국 측이 사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사드 파문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게 국내 인사들의 판단이다.

상하이 유즈미술관이 2017년 9월 계획했던 단색화 전시도 무기한 연기됐다. 유즈미술관을 운영하는 인도네시아 출신 사업가 부디 텍이 2016년 9월 방한해 기자간담회까지 열어 발표했던 전시 계획이었다. 상하이 현대미술관(MOCA)에서 추진하던 큐레이터 교류 프로그램을 비롯해 양국 미술계의 인사 교류도 중단됐다.

국내 화랑과 갤러리들이 중국에서의 부진 원인을 사드로 몰아갔다는 반론도 있다. 하지만 중국에서 단색화를 위시해 한국 미술을 향한 관심이 커지던 시기에 사드 갈등이 악재로 작용했다는 데는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중국 문화예술 특구인 웨스트브드에 아라리오갤러리 상하이가 진출하는 등 간간히 반가운 소식도 들렸다. 11월 초에는 중국의 우수 사립미술관 관장·부관장·큐레이터들이 서울의 플랫폼-엘 컨템포러리 아트센터가 마련

한 제1회 한중사립미술관 국제포럼 참석차 방한해 다소 누그러진 분위기를 보여주기도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직후인 3월 초 들려온 삼성미술관 리움의 개점휴업도 사드 이상으로 국내 미술계와 시장에 충격을 줬다. 삼성미술관 홍라희 관장과 홍라영 총괄부관장이 사퇴했고, 4~8월 김환기 회고전과 9~11월 서예전 '필(筆)과 의(意) 한국 전통서예의 미(美)도' 취소됐다.

삼성미술관 리움은 국보·보물급 고미술과 근·현대 한국 미술, 세계적인 현대 미술을 아우르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전시공간이다. 흥 관장 또한 우리나라 미술계에서 수년간 영향력 1위를 지킨 '큰 손'이라는 점에서 업계나 시장에서 느끼는 당혹감은 컸다. 흥 관장의 복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 '푸른색 전면점화 65억' 김환기 최고가...단색화 열풍은 주춤

한국 추상미술을 대표하는 작가 김환기(1913~1974년) 작품이 2017년에도 국내 미술품 최고가 기록을 세웠다.

김환기가 세상을 떠나기 1년 전 미국 뉴욕에서 그린 푸른색 대형 전면점화인 '고요(Tranquility) 5-IV-73 #310'은 4월 12일 서울에서 열린 케이옥션 경매에서 65억5천만원에 낙찰됐다. 이 작품은 김환기를 대표하는 푸른색 계열로 세로 2m 60cm 가로 2m 캔버스를 뒤덮은 수천 개의 푸른 점이 별무리를 연상시킨다. 맑고 푸른 하늘에는 하얀 선으로 문을 냈다.



▲ 4월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K옥션에서 열린 4월 경매에 김환기 작가의 '고요(Tranquility) 5-IV-73 #310'이 한국 미술품 경매 최고가를 경신한 65억5천만 원에 낙찰됐다.

작가는 스페인 화가 파블로 피카소가 숨지고 이를 뒤인 1973년 4월 10일 일기에서 "(작업) 3분의 2 끝나다. 마지막 막음은 완전히 말린 다음에 하자. 피카소 옹 떠난 후 이렇게도 적막감이 올라."라고 적기도 했다.

이전까지 국내 미술품 최고가는 2016년 11월 서울옥션 홍콩 경매에서 팔린 김환기의 노란색 전면점화 '12-V-70 #172'(63억2천600만원·4천150만 홍콩 달러)였다. 미술 시장에서는 2015년 10월 김환기의 푸른색 전면점화인 '19-VII-71 #209'가 박수근의 '빨래터'(45억2천만원)를 제치고 47억2천만원에 팔린 뒤 2년 넘게 김환기가 김환기를 계속 넘어서는 현상이 이어졌다.

국내 미술품의 최고 경매가를 기록한 '고요(Tranquility) 5-IV-73 #310'부터 '12-V-70 #172', '무제 27-VII-72 #228'(54억원),

'무제'(48억6천만원), '19-VII-71 #209'까지 모두 김환기 작품이다.

한국미술사가감정협회가 2017년 12월 말 발표한 '2017 국내 미술품 경매시장 연말결산'에 따르면 김환기 작품 낙찰총액은 253억9천800만원으로 2016년 415억원보다 많이 줄었다.

김환기의 최고가 경신은 이어지고 있지만, 2013년부터 국내 미술 경매 시장의 급성장을 주도했던 단색화 열풍은 조금씩 사그라지고 있다.

단색 화가로 분류되는 정상화, 박서보 등의 낙찰총액도 2016년보다 50억원 정도 감소했다. 이를 두고 단기간에 급등했던 단색화가 시장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반기에는 단색화와 함께 양대 사조로 꼽히는 민중미술 작가들의 대형 전시가 이어지면서 주목받았다. 촛불집회를 주제로 한 임옥상의 대작 '광장에, 서'는 가나아트센터 전시 후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청와대 본관 벽에 걸리면서 화제를 모았다. 임옥상, 강요배, 손장섭, 박불똥 등의 작품을 통해 1980년대 이래 한국 리얼리즘 미술의 발자취를 짚어보는 전시도 성곡미술관에서 열렸다.

2017년 말 이적표현물로 몰려 30년간 서울중앙지검에 보관됐던 신학철 그림 '모내기'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위탁 보관된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미술계 최대 위작 시비에 휘말린 '미인도'는 2017년에도 계속 다툼의 대상이 됐다. 검찰이 '미인도'가 천경자(1924~2015년) 작품이라고 결론 낸 데 반발해 유족이 '검찰 처분이 옳은지 판단해 달라'며 재정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족은 '미인도'가 위작임을 보여주는 증거를 모은 책 '천경자 코드'를 내는 등 반발을 이어갔다.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에 있던 '미인도'는 과천관에서 열린 '소장품 전: 균열'에서 일반에 처음 공개됐다.

음악

대중가요

■ 개요

2017년 가요계는 방탄소년단과 트와이스·워너원의 활약이 두드러진 가운데, 사이니 종현이 갑작스럽게 사망하고 대마초 흡연과 음주운전 등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중국 활동이 막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국에도 해외에서 뚜렷한 발자국을 남긴 방탄소년단과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끈 트와이스는 사이 이후 침체했던 K팝 한류의 불씨를 되살렸다.

앨범 시장에서는 방탄소년단이 가온차트 집계로 판매량 약 150만 장을 기록했고, 음원 시장에서는 1억 스트리밍 돌파 곡이 12곡 나왔다.

2016년부터 이어진 2세대 아이돌 그룹의 해체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탄생한 '괴물 신인' 워너원이 신드롬을 일으켰다. 중견 가수 윤종신이 '솔니'로 하반기 음원 시장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